정보

Leoš Janáček: *The Makropulos Affair*

개요

곡명 : *The Makropulos Affair* (원제 *Věc Makropulos*, JW I/10)
작곡가 : Leoš Janáček (1854–1928)
작곡 시기 : 1923–1925년
장르 : Karel Čapek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체코어 3막 오페라
초연 : 1926년 12월 18일 , Brno National Theatre(당시 Theatre Na hradbách), František Neumann 지휘
소요 시간 : 약 95분 (막별 안내 합계), 공연 안내는 막간과 연출에 따라 1시간 40분에서 2시간까지 제시됨
출판 : Universal Edition 성악보 (1926)와 전곡 총보 (1970), Jiří Zahrádka 비평판 (2014)

IMSLP: *Věc Makropulos*, JW I/10

Wikipedia: *The Makropulos Affair* (opera)

Leoš Janáček의 *The Makropulos Affair*는 Karel Čapek의 1922년 희곡을 체코어 오페라로 옮긴 작품이다 . 세 막은 1920년대 Prague의 법률사무소 , Emilia Marty의 공연이 끝난 극장 무대와 뒤편 , 다음 날의 호텔 방으로 이어진다 . 337년을 살아온 Elina Makropulos가 여러 이름을 거쳐 현재의 유명 가수 Emilia Marty로 나타나면서 ,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상속 소송이 그녀의 정체와 장수의 약으로 연결된다 .

출판 정보

1926년 Universal Edition은 Ludvík Kundera의 편곡과 Max Brod의 번역·편집을 담은 성악보를 출판했다 . Janáček 공식 자료는 1970년 전곡 총보와 2014년 Jiří Zahrádka 비평판을 별도의 출판 이력으로 기록한다 . Universal Edition의 현재 비평판은 작곡가의 최종 자필과 평생 사본을 대조하고 Neumann의 공연 다이내믹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

Bärenreiter의 LJCE A/9는 다른 편집 목표를 제시한다 . 이 판본은 Jaroslav Kulhánek의 두 번째 승인 사본을 중심으로 Brno 초연 당시의 악보를 재구성한다 . 따라서 Universal Edition의 최종 자필 중심 판과 Bärenreiter의 초연판 중심 판은 단순한 오탈자 교정판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은 자료와 공연 상태가 다른

비평판이다 .

초연과 작품의 연대

Janáček는 1922년 12월 Prague에서 Čapek의 희곡을 본 뒤 오페라 가능성을 찾았고, 1923년 9월 10일 Čapek의 각색 허가를 받은 뒤 작업을 진행했다. 작곡 시기의 세부 시작일과 완성일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자료는 1923년부터 1925년까지라는 범위에 일치한다.

세계 초연은 1926년 12월 18일 Brno에서 František Neumann의 지휘로 열렸다. 당시 극장 명칭은 Theatre Na hradbách 또는 Městské divadlo Na hradbách으로도 기록되며, 현재는 Mahen Theatre로 불린다. Janáček가 초연에 참석했고 Ota Zítek이 무대를 맡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28년 Prague 공연은 Otakar Ostrčil이 지휘했다.

소요 시간

Janáček Foundation의 막별 안내는 제 1막 35분, 제 2막 30분, 제 3막 30분으로 합계 약 95분을 제시한다. 실제 공연 안내에는 1시간 40분, 1시간 50분, 약 2시간, 120분 등이 제시된다. 이 차이는 막간의 길이, 번역 여부, 연출과 공연장 안내 방식에 따라 생기므로 어느 한 수치를 전체 공연의 고정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편성

Bärenreiter의 상세 목록을 기준으로 한 무대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 플루트 4(피콜로 겸용),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3,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3,
콘트라바순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 팀파니, 벨, 실로폰, 작은북, 어린이용 또는 장난감 북, 캐스터네츠 , 큰북, 매달린 심벌
기타 악기: 하프, 첼레스타, 현악기, 비올라 다모레
무대 뒤: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합창 표기는 자료에 따라 다르다. Universal Edition의 검색 자료는 남성 합창 TTBB 를 적지만, IMSLP의 일반 분류는 혼성합창으로 표시한다. 두 표기를 하나의 확정된 판본 사실로 합치하기는 어렵고, 실제 합창 성부와 인원은 판본별 총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올라 다모레, 무대 뒤 금관과 팀파니, 어린이용 북은 이 오페라의 대편성 안에서 특별한 음색과 공간을 만드는 악기다.

배역과 세 막의 장소

주요 배역은 Emilia Marty 또는 Elina Makropulos(드라마틱 소프라노), Albert Gregor(테너), Dr Kolenatý(베이스 바리톤), Vítek(테너), Kristina(메조소프라노), Jaroslav Prus(바리톤), Janek(테너), Hauk-Šendorf(성격 테너 계열)이다. 청소부, 호텔 하녀, 무대 기술자, 의사와 무대 밖 남성 합창이 주변을 이룬다. Elian MacGregor는 별도 인물이 아니라 Emilia가 과거에 사용한 이름 가운데 하나다.

1. 제 1막, Prague의 법률사무소 : Vítek과 Kolenatý는 Gregor 가문과 Prus 가문의 상속 소송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설명한다. Emilia는 오래된 편지와 유언장의 위치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Albert Gregor가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찾도록 돕는다. 이 법률
사건은 현재의 인물들이 수백 년 전의 혈통과 문서에 매달리게 하는 출발점이다 .
2. 제 2막, 오페라 극장의 무대와 뒤편: Emilia의 공연 직후 인물들이 모인다. Hauk-Šendorf는 그녀를 반세기 전 Andalusia에서 만난 Eugenia Montez로 알아보고, Jaroslav Prus는 봉인된
봉투와 자신의 가문에 얽힌 기록을 둘러싸고 Emilia와 맞선다. Albert와 Janek의 매혹, Kristina의 열등감, Prus가 문서를 넘기는 대가로 제시하는 거래가 한정된 무대 공간에서 겹친다.
3. 제 3막, 호텔 방: Jaroslav가 봉투를 건넨 다음 Janek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다. 여러 시대의 E. M. 서명과 필적이 Emilia의 정체를 드러내자, 그녀는 1575년 Crete에서 태어난 Elina이며 아버지 Hieronymus Makropulos가 Rudolf II의 궁정에서 장수의 약을 만든 연금술사였다고 고백한다.
약효가 다하자 Emilia는 제조법을 Kristina에게 넘기지만, Kristina는 그것을 불태운다. Emilia는
무한한 젊음 대신 유한한 삶을 받아들이고 무너진다.

대본과 음악적 진행

Čapek의 희곡은 1922년 Prague에서 초연되었고, Janáček는 이를 오페라의 대본으로 직접 재구성했다. 오페라의 마지막은 희곡과도 다르다. 희곡의 Marty가 냉소적인 태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비해,
오페라에서는 Kristina가 약의 제조법을 태우고 Emilia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말이 정리된다.

음악은 빠른 대사와 짧은 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National Moravian-Silesian Theatre의 해설은
마지막에 가까운 몇몇 확장된 아리아를 제외하면 긴 아리아와 동시에 겹치는 앙상블이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도 서주, 마지막 독백, 인물 사이의 대화적인 성악 쓰기를 구분해 언급한다. 이 작품은 번호가 분명한 독립 아리아를 연속으로 배열하기보다 , 법률 문서와 욕망과 정체 폭로가
대화 속에서 즉시 이어지는 방식으로 긴장을 만든다.

Janáček의 nápěvky mluvy 연구는 이 말 중심의 성악과 관련해 자주 언급된다. ISCA 연구는 그가 1897년부터 말의 억양을 기록했고 1901년부터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 Janáček Archive에 56권의 노트와 6,000개가
넘는 사례가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연구가 모든 성악 선율을 실제 발화의 기계적인 전사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LSO의 프로그램과 Los Angeles Times의 비평은 체코어 대사의 억양과 단편적인 parlando 라는 청취 인상을 제시하지만 , 이는 작품 전체를 단일한 작곡 기법으로 확정하는 근거와는 구별해야 한다.

1925년 12월 5일 Kamila Stösslová에게 보낸 편지에서 Janáček는 장수한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다. 또 초연 직전 Universal Edition에 보낸 편지에서는 관현악이 가수를 덮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Neumann의 다이내믹을 언급했다. 두 직접 자료는 Emilia의 심리와 무대에서의 성악 명료도가 작곡가에게
실제 공연의 문제였음을 보여 주지만, 특정 장면의 해석을 하나로 고정하지는 않는다.

언어판과 공연 수용

2006년 English National Opera 실황을 바탕으로 2007년 Chandos에서 발매한 Mackerras 지휘 음반은
영어 번역으로 노래한다. The Guardian과 MusicWeb의 동시기 비평은 영어판이 대사의 이해에 편리하다는 점과 1978년 체코어 녹음이 체코어의 미묘한 억양과 성악선에 주는 효과를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이 비교는 어느 한 언어가 유일한 정본이라는 뜻이 아니라, 번역이 자음, 강세, 말의 속도를 바꾸어 음악의 전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공연 수용의 기록이다.

2022 Welsh National Opera The Guardian Tomáš Hanus Bärenreiter . . , , , .

- Leoš Janáček : The Makropulos Case: , Prague ,
- Janáček Foundation: Věc Makropulos: , , 2015
- Universal Edition: Die Sache Makropulos: 2014
- Bärenreiter Praha: Věc Makropulos LJCE A/9:
- London Symphony Orchestra : , , ,
- National Moravian-Silesian Theatre : , ,
- The Guardian, 2007 : Mackerras 1978
- ISCA Archive, Janáček speech melody : `nápěvky mluvy`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29 UTC by
Updated 2026-10-04 10:06:29 UTC by